**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평안을 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123:1)

주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니,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언제 완전히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는 새로운 변이들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사람들과 대면 교제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단체는 월초에 3일, 12월에는 7일간의 기도(금식)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땅끝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동역자님들과 나눈 편지의 기도제목과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곳은 코로나와 세계에 대응하는 정치적 상황과 높은 물가 상승 등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난번 편지에 적은 김치 시연 행사를 U부인과 A가 도우미로 함께 해 대면 교제할 수 있었고, U부인 딸이 흑해 지역으로 출장 간 지방도시에 저도 3박4일 잘 다녀왔습니다.

12월에는 주님 오심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에 영혼들에게 나눌 복음전도 카드와 저의 은사를 사용해서 김치를 담아서 전하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월 9일 문화원에서 한식동영상 촬영을 의뢰해서 이번에는 조리만 하는 조건이라 수락했습니다. 3명의 한국 선생님과 현지인 1명이 참여하는데 저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전통음식 4가지를 준비하면서 상차림과 복장 등으로 차별화를 둘 생각인데, 창조주께서 주신 자연의 재료로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하며 전문인 사역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영혼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쁩니다.

A는 아르바이트가 직업이라, 교제와 양육을 위한 시간을 만들 기회를 만들고 정기적인 약속을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열심을 내도록 간구해 주세요.

 H부인은 외손자가 학교에서 감염되어 와서 어린 외손녀(9개월)가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공급을 받는데, 딸이 직장 때문에 보호자로 간호하느라 많이 여의었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둘째는 에게해 지역 도시의 치과에 취직을 했다가 3개월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막내 수영선수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14년 근무한 한국을 좋아하는 새로운 영혼 A1을 만났고, 윗집의 S는 다음주 토요일에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고, ‘에르진잔’의 S의 여동생 유치원 교사 M이 시외곽에 살고 있어 오랜만에 대면 교제를 하는데 모든 대화의 내용을 성령께 의뢰합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올해도 동역해 주심에 감사와 사랑을 전하면서 소식을 나눕니다. 한국의 분주하고 바쁜 연말연시의 추운 계절에도 영육이 더욱 강건 하십시오.

 2021. 12. 4. 김에스더 드림